留置中脫走한 安城의 重大犯

취됴도하지안코류치중에 밤을타서몰래다라낫다고

駐在所員은活動開始

지난이십구일 오후세시경에 경긔도안성군이죽면 죽산경관주재소(安城郡二竹面 竹山警察官駐在所)에서백정범(白正範)이란가명(假名)을 가진 수상한청년한명을 검거하엿는데 여러가지행동을보아 그가 중대범인인듯하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청년은 권긔주재소에서취됴(取調)도하기전인그날밤중에류치장(留置場)으로부터 도망을 하야 종적이 묘연함으로그곳순사들은 그를수색코자 무한로력중이라더라(안성)

安邊安興學校의 基本財産問題

흑막이잇다고

됴사위원을선거

안변군안도면 중평리 사립안흥학교(安邊郡安道面中坪里私立安興學校)설립자 리병재(李炳宰)는자긔가관리하야오든 학교긔본재산에대한 계산을 우금까지숨겨오던바지나간삼칠일에이르러안도면민(安道面民)들이면민대회를개최하고 학년연장(學年延長)에관한건과학교에대한 여러가지사항을 토의하든중 긔본재산의 협축과문부상모호한점이 자연발각되야 일반은분긔충텬하야회장(會場)의공긔는돌연긴장하여젓다학교재산으로인하야학년연장의건은론의도못하고다만문부됴사위원삼인을선뎡하야 긔본재산을 됴사케한후 폐회하엿다는데 됴사위원은아래와갓더라

金裕能、金炳國、金鼎錄 (원산)

黃州에紅疫猖獗

死亡兒童이三十餘名

아즉도계속하야만연되는중

근일황주(黃州)에는홍역(紅疫)이 심히류행하야 삼월한달동안 황주면(黃州面)에서만사망한아동의수효가 삼십삼명이나 된다는데 사망한아이의 년령은대개 이삼세식된 아이들이라하며 아즉도 만연되는중으로 현재도홍역에 걸린아동들이 불소하다는대 황주일반인심은 매우흉흉하더라(황주)

兼二浦映畵會

성황리에마추엇다

황해도 겸이포(兼二浦) 류학생학우회(留學生學友會)에서는금반춘긔방학의 시긔를 리용하야 지난달 삼십일일부터 본월 일일까지 겸이포좌(兼二浦座)에서본사겸이포 지국의 후원으로 고대소설(古代小說)장화홍련전(薔花紅蓮傳)의활동사진으로영화회(映畵會)를개최 하엿는데 학우회장강정현(姜貞賢)씨의사회로 막이열리자 만장관객의박수소리를따라 수백년내 소설에 전하여오던장화홍련의비참한연혁(沿革)을 눈으로 보게된군중은우슴과눈물을 석거 무한한감

海州에覆面强盜

범인은아즉도못잡엇다고

지난삼월이십팔일오후열두시경에 해주군리목동시장거리(海州郡梨木洞市場)에서 잡화상하는김병찬(金炳贊)의 집에 복면한강도세명이 침입하야 검은금궤(金櫃)와기타의복등을강탈도주하엿는데 이소문을들은 당디주재소에서는 범인수색에 대활동을하는중이나 아즉하등단서도 엇지못하엿스며 피해는 얼마되지안는다더라(신천)

◇……본사를견학한련도교디립방신도단……◇

[illegible]갓더라(겸이포)

本報兼二浦支局 [illegible]

主人不在中에 土地를自意典執

[illegible]의곳범을 거러서고소를데기하얏다

봉산군 사리원면동리원(鳳山郡沙里院面東里院)[illegible]

永同市場稅는

[illegible]장(忠北永同市場)에 [illegible]삼십구일부터 시장세가 [illegible]종래시장세가잇 [illegible]상인(山市人)의 곤 [illegible]업(業)와 상인사이에 불 [illegible]생기어 말할수업는폐 [illegible]오든바 이케와서시장 [illegible]된것은 일반상인들에 [illegible]이라고 대단히깃버하 더라(영동)

龍川郡에大山火

오천여평이전소하엿다

[illegible]

金化郡에 怪火頻頻

[illegible]

公金橫領한 面書記遂被捉

[illegible]

宣教師의暴行

술이취하야

[illegible]

价川州西曠野에 遍滿한勞役婦女

그들의생활이가이업슴을 한번바라보아곳알게된다

[illegible]

합갑게로동을하는것으로서실로 그들의정상이가련하다더(개천)

한新郞에 두新婦

신랑은본처약혼한녀자에게빼앗겻다가 다라나고새신부집은신랑이안와서야단

晉州初有의喜活劇

지난삼십일일오정에 진주(晉州) 평안동(平安洞)에사는한순경(韓順卿)(二五)이란녀자의집과 옥봉리(玉峰里)김경원(金京元)의집압에서는수백군중이모히어수군거리며 신랑은 한아인대 시집갈녀자가 둘이되여 구경이참만하다는등 신랑은한순경이란 약혼한녀자집에 잡히여 잇다는등 여러가지소리가 사면에서 일어나며 군중은

더욱더욱 모이게되여인산인해를 이루엇든바 신부집되는김경원의 집에서는 제반준비를 다해노코 신랑을기달엿스나 잡피여잇는 신랑이 올수는업섯다 그리하자 돌연히한순경의집에서는 별안간 부녀칠팔인이길거리에 뛰여나와 신랑이도망가니 잡으라고 고함을치며일대소동이 일어낫다는데 이제사실을자세히 듯건대 신랑되는사람은 대구남산뎡(大邱南山町)삼십일번디최도갑(崔道甲)(二〇)이란청년으로 금년에진주사범학교(晉州師範學校)를졸업하고 진주김경원의딸김경희(金京熙)(一八)와 화촉의연을 거행하라든 날에 괴와가튼 희활극이 연출되어

며칠전에 약혼하얏든바 결국호례를 거행치도못하고 한순경이란 녀자의 감금을당하얏다가 저녁쌔에일으러 간신히몸을빼여어대로인지자취를감추엇다는데 그들이 권긔와가튼희활극을연출한그리면에는말못할비밀이잇섯다고한다 그들이서로알게되기는 진주도립병원(晉州道立病院)에서

의간호부(看護婦)로잇는한순경이엿다 가튼간호부로잇는권필순이라는녀자의 소개로알게되여병원

긔숙사에서 서낭을내도나 들게되엿다 그리하야 그들은한순경의부모되는비봉동(飛鳳洞)한경련(韓京連)의집으로 일요일밤이면 밤도이만나거나 긴격을 방을사랑의 속삭임으로 새운적도한두번이 아니엿섯다 그들은 어늬때권긔 한경련의집에서 서로장래를 굿게약속하고 약속하는표뎍으로 돈삼백원식을 서로걸고 최도갑이가 학교를졸업하는날에 호례를거행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마음이변한다면

삼백원이 무효된다는계약을 테결하엿다 그들의사랑은 새해를 맛게되고 그들의사랑안에 날도깁허가게되는째한순경은작년일은봄에 간호부생활을 그만두고 집에잇게되매 자유의몸이 되여 째업시서로맛낫섯다 그러나 새월은 쉴새업시가서 실거운 봄철과또는 여름도보내고 가을을맛게되자 그들의사랑은차츰 냉각하기시작하엿든째 그리면에는 별별일이만햇스니 최도갑은 그후한순경이가 자긔를 때

다른남자 들과추악한관계를맺엇다하야 최도갑은 한순경을멀리하엿다그리하야최도갑이가 작년동긔방학에 자긔집에갓다온후에 여러가지리유로 결혼문제는 준렬히 거절하야바리엿다 이말을들은한순경은 커다른놀래엿스나 할수업시 애원도하여보앗스되 한번돌린 최도갑의마음은 좀처럼도라안지엇다 최도갑이가 학교를졸업하기

며주일전 에진주일신녀자고등보통학교(晉州一新女高)에다니는 김경희(金京熙)와 연담이생기여 불과몃날이안가서 약혼하고 한순경의 아지못하는동안에 제반준비를마치고 자미스러운그날을 기다리기 마지안엇다 그러나호례를 거행코자하기몃칠전에 한순경의귀에 들어가게되매 한순경은 최도갑을차저가서 울며불며하엿스나 아모런해결을못지우고잇든차에한순경의부모와 가족들이 이사실을

알게되야 그의부모와 친척일동인이 호례식을거행코자하는 삼십일일에

최도갑이 가례식을거행코자 차림차리를 다마치고나오는것을 권긔한순경의 가족들이 붓들어다가 한순경의 집에 감금하고 가진모욕을 하며 최도갑을 종일 붓잡아서 안치고 이현장에서 내자식을 처녀도고처내고돈삼백원을도로내다고조여대니이편경을당한최도갑은그돈은 내가쓴것이아니고 한순경과려행단이면서 써바린 것이라 변명하며또는그돈을

준다해도 오늘은넙스니 증서를써노코다음에준다하여도 종시듯지안음으로 그는 하는수업시그들의눈을피하야도망질을하고말앗다는데그들은예를지여 길거리로 차저단엿스나 최도갑은간곳이업섯다 그리하야그들은김경희의집에달려가서욕설을하여일대희활극을 연출하엿다는데신부되는김경희는밥을안먹고 수심중에싸여잇다더라 (진주지국일긔자)

衣服竊取하야

면당국에잡혀서

십칠원밧고경찰서

포천군 일동면 수입리(抱川郡一東面水入里)일백삼번디에 사는 강일성(姜一成)(二三)은 지난 십삼일밤 열시경에 동리(同里)일백이십ㄴ번디김숭진(金崇鎭)의 집거는방에 드러가서 가격백원어치되는 이십솔별의옷을 훔처가지고 경성에올라가서 엇던 전당포에 십칠원에 잡혀먹은것이발각되야 포천경찰서에 톄포되야 취됴를마치고 지난이십칠일에 검사국에 송치되얏다는데 전과도잇다더라(포천)

各町里長會開催

電料減額問題로

면긔료금감하운동에대한 경비지출을협의하엿다고

평양면긔치하문데(平壤電氣値下問題)에대하야누차보도하엿거니와 지난일일오후 한시부터 평양부령루상(樓上)에서평양부각뎡리장회(町里長會)를개최하고 면긔치하운동에 대하야 경비문데를장시간토의한결과일천오백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하엿다더라(평양)

防疫費殘金을 社會事業에쓰자고

각총대들이결의

그러나부민들은불평

지난이십구일 오후두시부터 인천부텽(仁川府廳)안에서각정리(各町里)총대회(總代會)를개최하엿섯다는데 당일 구데적결의한사항은 한동안인천사회의이목을 놀내이든 병진년방역잔금문데(防疫殘金問題)를비롯하야 송림리(松林里)총대 리재구(李宰九)에대하야 총대간사회(幹事會)로부터 리재구는간사될자격이업다는 리유로 축출(逐出)하기를 만장일치가결하고 곳후임을내리(內里)총대손양한(孫亮漢)씨로 선발하엿다하며문데된방역잔금문데는 아즉 보류하는동시에 압흐로 인천사회사업에필요히 사용하기로 결녕하고 산회하엿다는데 일반 부민들은 방역비문데 처치에 불만을품는다더라(인천)

問題의面長呼出

수원검사국에서

경긔도 안성군삼죽면장 리범직(京畿道安城郡三竹面長李範稙)의비행사건으로 일반사회의 평판이 자자하다가 결국경찰서출입까지한 사실은본시에 두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팔일경에 다시 경성디방법원 수원지텽검사국(水原支廳檢事局)에서 리범직을 호출하얏다는데 원고인 구문회(具文會)씨 동군이죽면장원리(原告人)인 동면죽산리사법대서인 리면구(竹山里司法代書人李冕求)씨도동시에출두하엿다더라(죽산)

仁川埠頭에中國苦力群

三月中에七千名突破

봄일긔가점점짜뜻하여짐을짜러서 중국로동자가조선으로작고밀린다

朝鮮勞働者의 絕大한威脅

갈사록 경제의공황은 더욱더욱 심하여가는이째에 조선 로동계를침해하는중국고력군(苦力群)은짜뜻한 봄철을따라 조선으로 나오는 그수효가 적지아니하다 본년일월부터 삼월말일까지 인천을거처 각디로흐터지는 그룹계를보건대좌긔와갓다

一月中 八百三十二人
二月中 二百九十二人
三月中 六千三百六十四人
計 七千四百八十八人

이상과가튼 놀내일만한 수자를 보히는데 우리의 로동사회에는그수효만큼,타격을 바들것이오 또중국로동자와가튼 로동임금이 또한 적어질 모양임으로조선로동계는 점점 조잔하리라는바 해마다중국로동자에게 써러지는돈이 일백여만원이라더라(인천)

面會計員이 萬餘圓을橫領

개성군송도면의일인회계 공금만여원을횡령후도주

개성군송도면회계원(開城郡松都面會計員)으로잇는대오범조치(大梧法朝治)(四〇)는공금일만여원을 소비하고 행방을감추엇다는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탐지하야보면 권긔대오범은 대뎡팔년면제실시(面制實施)당시송도면서긔로 임명되여가지고 동년오월에 면회계원이되야 오날까지 칠팔년동안이나 근무하면

일만여원 서 사무에충직하야 일반의신임이 두텁든바인데 어느째로부터 그러짓을하얏든지 엇잿든 도망을갈째까지 그사이의 확실한총계는몰으나 대략 일만여원이나되는만흔돈을 소비하야 버리고서 술그면이 종적을 감추어바린것인대 이사실이탄로되기는 지난삼월이십사일부터 동삼십일까지 시행한 개성군면행정담임자(開城郡面行政擔任者)가면에 출장하야 시행하는 년도말문서뎡긔검사(年度末文書定期檢査)시에 필경탄로된것인데 그째는 발서 대오범이가 자긔의죄상이 탄로될가 그리하얏든지 신병(身病)으로인하야 경성총독부의원에입원을한다하고경성으로

출발하야 부재중이엿승으로 즉시경성총독부 의원으로조회를 하얏더니 뜻박게그곳에잇지를 아니하고 행방이불명된것이 판명되여 면당국에서는 엇지할줄을 모르면서 이사실이 세상에 탄로될것가트면 면당국의무신경을 비난하는소래가 비등할것을 겁내여 엇더케든지비밀리에 해결을하고저 군당국과 경찰당국과 사이에 연일구수회의가잇스면서 범인의행방을 엄탐하고잇든중 필경에는 이소문이세상에 알려지고마라서 방금 송도면 민간에는 만여원이나되는돈을

소비하야 바린것을모르고잇다가 문서검사시에야 비로소 발각한 면당국감독자들의불찰과이러한사실이발생한것을세상에일려질가두려워서지금까지도 우물주물하면서 사실만옹폐하고저애쓰는그행동을비난공격하는소래가 자못놉다는데 긔자가면당국과 경찰당국등에 이사실여하를됴사할째도다가려사실은시인하지만자세한내용은발표치안는데 민간모유력자의 말을드르면 대오범으로 말하면상당한신용을가진사람으로

만원돈쯤 은어떠케든지 만늘수가잇는사람인데이번에행방을숨겨바린것을보면소비한논이만원이상의돈이되여자긔능력으로는 관상할수가 업슴으로결국행방을 숨겨바린것이라고말하는바 대오범은 신원보증인이세사람이나잇슴으로소비금액에대하야는 면당국의 손실은되지안을듯하다 더라(개성)

江景電氣問題

六十戶遂消燈

교섭은결국결렬되야서 륙십여호가소등을단행

두보한바 강경면등료금인하운동은 파반시민대회에서 결의한대로 실행위원이십여명이 강경한면긔회사의 태도에 분개하야조곰도 반성할여디가 업겟다고단연히소등을 결행하기로 한후여섯단데대표들과한가지삼월삼십일일에는이경제적공항시긔에잇서서도저히빗산료금을주고던등을 결수업다 는이에게 일제히 됴인을하여가고 그날 오후오시에 던긔회사로 휴등신청을하야두엇섯다는데 던긔회사에서는 사월일일아침구시부터륙십여호에소등을하고돌아갓다더라

面內有志는 調停策講究

강경면의불명예라고

던긔문데의 교섭은결국결렬되야서 소등까지하게된 고로랑립한형세가 자못 험악하야 소등을 단행한 당국자의방침을비난하는 물의는비등하여가지고 필경은 추천강경면장(秋田江景面長) 무등경찰서장(武藤警察署長) 정뢰미곡상조합리사(米穀商組合理事)외제씨들이 조정의로를 취하야 이문데를속히 해결하고 시민으로하야금복리를 도모하고저 분과하는동시에 강경경찰서도 일일오후두시에 륙단데대표와 실행위원들과회견을하고 얼마동안만 소등실행을 연기하여달라고 부탁을하고 던긔회사와 교섭을하야 종속히 회답을들리어 주겟다고까지 상약을하고 강경권데의불명예를 미연에 방지하고자극력노력하는중이라더라(강경)

信川妓生이 中國料亭排斥

뽀이들짜지 기생에게 건방진것이동긔라고

신천에는 조선인이경영하는 료리집완월관과중국인이경영하는 동락관이잇스며 이에따라서 기생이십여명이나 잇는바 엇던연고인지 일반손님은 중국인료리집에만가고 조선인이 경영하는 료리집에는도모지손이업서서거의 폐지할디경에 이르러일편손유감으로생각하야조선인료리집중에서나기생가온데서도이것을에 동정을하며 만회책을연구하든바중국인료리집에서는보이까지일반기생을 대하야 조치못한언사를쓰으로 이것을 한동긔로기생이집합하야 이후로는 중국인료리집에는 절대로노름을 안밧기로동맹하얏슴으로중국인료리집에는 퍽한커하게 되엿스며 폐지할지경에 이르럿든 조선인료리집에는 다시번화함을 일우는동시에 일반손도 조선인경영의료리집이 흥청하야 갑늘깃버한다더라(신천)

母親債務갑고저 몸을팔어三百圓

박명한최옥화의험한반생

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면(燕岐郡鳥致院面)본뎡이뎡목 김순화(金順化飮食店)뒤밧한구석에서방금이십가량된 녀자한아가한숨을길게내여쉬며 실음업시 눈물을흘리고 안저잇는비극의 일막이잇섯는데 그녀자는 금년에십구세된최옥화(崔玉花)라는녀자로서본래경성(京城)출생으로 일즉

머니에게 잘아나서 출가하엿다 남편되는사람이일본으로갓다왓다하더니생각지도못하든 리혼문데를일으키여 결국작년봄에 사랑하든남편과 헤여지는동시에 모친에게로 차저왓든바 모친도기간 의지할곳을 찾기위하야 어느사람에게로 개가케되엿섯다 의부에게 할로이

몰지내다가 의부와모친의 채금을갑기위하야 작년음력 동지달에삼백원논을밧고 권긔 김순화의음식점으로 팔려와서 매삭몃원의 월급으로도빗을갑허가며 오고가는술손님을맛게되엿든바 셧달부터조치원시내에는음식점에

젊은녀자 를두지못하게 경찰당국에서 금지함으로 최옥화도역시김순화의집에잇지못하게되는동시에 음식점주인은 삼백원의 채금을 내이고다른곳으로가라하나삼백원의돈을내일수업슴으로 자긔모친에게 말하야 주선하려하엿스나별도리가업슴으로 할수업시조치원약송뎡(若松町)이로하(イロハ)일본사람이경영하는 료리집으로 삼백원의금권에팔려 가게되엿스나 딸려가는수속이 미비하야 자긔모친에게서 승락서와 인감오기만 손꼽아일자를 헤알여보며 장래를비관하는 그정상은 참아볼수업는현상이더라(조치원)

載寧郡에 短刀强盜

경찰은범인을엄탐

황해도 재녕군 우두천면신관리(黃海道載寧郡牛頭川面新串里)김당녀(金堂女)(三九)라는과부의 집에 지나간삼십일 오전세시쯤되야 수건으로얼굴을 가린청년 한명이 손에단도를들고 돌입하야금권을 데공하되 만일그러치안흐면 네집식구를 전부살해하겟다고 위협을하엿섯는데 마침과부와가티자든 처녀 두명이놀래며 머청동곡을 부르짓게되야 동리사람들이 깁히드럿든 잠을쌔치게 되엿슴으로 돌입하엿든 도적은 발각이될가 념려하야 모금품도 쌔앗지못하고 도주한바되야 동리의인심은 매오흉흉하게 되엿섯는바 이정보를접한 소할주재소에서 즉시 본서인재녕경찰서와 련락을취하야 범인을엄탐중이라더라(재녕)

紙幣僞造한다고 詐欺取財한者

징역이년에언도

경성부광희정이뎡목(京城府光熙町二丁目)칠십구번디 리충세(李忠世)(三四)와경성부황금정오뎡목(京城府黃金町五丁目)일백륙십삼번디강두희(康斗熙)(三三) 두사람은 작년구월경부터 강원도홍천군내(江原道洪川郡內)에 잠복하야지화위조(紙貨僞造)를 한다고 홍천군각면으로 다니며 자금이필요하다하야현금이삼십원을사긔하고홍천경찰서에잡히여일건서류와함긔 춘천검사국원교검사(元橋檢事)으로 송치되야 료를 마치고 지난삼월 이십사일 춘천지텽(春川支廳)에서공판을열고김판사(金判事)로부터피고에게 각각징역이개년의 판결언도가 잇섯다는데 피고등은 즉시 그판결을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공소를신립하엿다더라(춘천)

各團體消息

◇尙洞敎會春期傳道 사일오후일곱시반부터 남대문안 상동교회에서 아래와가튼 연데와 연사로 춘긔전도 데일일을시작

活宗教의要素 金昶濟

휘파람

▲겸이포(兼二浦)류학생학우회에서주최한장화홍련(薔花紅蓮)전의 영화회는참으로성황이엿섯는데 ▲그것은장화홍련보다학우회를사랑하는 일반의찬성이엿다 그가운데엇던관서(官署)에 사무원으로 잇는 친구한분는▲ 사람이 복잡한가운데서표를사다가남에게주는거스른돈(加錢)칠십전을 가로채여가지고갓는데 표팔든 학생은할수업시 거스른돈을 두번수게되엿다고▲그자의원홍은드러내지 안치만 그자의장래가가석